정의의 종

SNU LAW MAGAZINE

VOL. 3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준 열사 동상

1 2023학년도 학위수여식 축사
김종보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 서울법대 이야기
이철수 교수 · 노동법의 실천성을 좇은 학자
한인섭 교수 · 「가인 김병로」 일본판 발간
양현아 교수 · 아래로부터의 재현
김범수A, B 김주현A, B, C 학생 · 범수범수 주현주현주현, 로스쿨 동명이인의 일상
김민섭 학생 · 가비지 타임(Garbage Time)에 관하여
고소영, 이현아, 강예지, 송채은 학생 · 놀러오세요, '숨결'으로
백인서, 최재현, 이연하 학생 · 민법 암기를 넘어 음미(吟味)하기: 법령경연 학술대회 우승팀
임민희 변호사 · 교육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제1회 SNULaw 공익법 캠프 성료

11 법학전문대학원 소식

13 연구소·센터 소식

15 릴레이 도서 추천

기금 안내
SNU Law 캠페인 안내
Next Decade 기금 안내
법학발전재단 및 발전기금 출연현황 2023. 3. 1. — 2023. 8. 31.
예우 안내

정의의 종 38호
발행일. 2023년 9월
발행인. 김종보 원장
편집인. 최준규 학생부원장
기획 및 제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랑하는 서울법대 졸업생 여러분. 학위취득을 축하합니다. 오랜 학업을 끝내고 논문을 심사받아 박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받는 것은 언제, 어느 나라에서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졸업식이 성대하게 거행되는 것이겠지요. 이 자리를 빌어 그간 조력을 아끼지 않으신 졸업생의 가족분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건넵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학위는 물론 여러분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것이지만, 과거에 축적된 학문적 업적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길고 어려운 논문심사의 과정에서 여러분은 과거로부터 연면히 흐르는 서울법대의 학문적 전통과 서울법대 교수님들의 연구업적, 그리고 그간에 쌓인 일반적 법학연구의 성과물들에 자신의 학위논문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은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속력 있는 약속입니다. 약속이 개인과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계약이나, 민사적 합의로 나타나고, 약속이 공동체 전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최상위의 헌법이나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 속에 담기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과 계약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기는 합니다만, 당연히 이런 약속은 잘 안 지켜지고 다양한 견해대립에 의해 수없이 많은 분쟁으로 연결됩니다. 법학은 이런 다양한 분쟁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탄생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법학은 선사시대에도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존재했을 것이지만,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도 법학은 2000년 가까운 로마법의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근대적, 서구적 의미의 법률과 법학이 도입된 것도 100년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 온 법학은 공동체의 운영과 유지에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학은 보수적인 학문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법학은 현재와 미래의 제도를 예측하고 설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부여받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 모두 느끼는 바와 같이, 지금은 누구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과학기술의 발전이 급격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평행 우주처럼 우리의 일상과 병행해 존재하면서 우리의 일과 생활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은 새로운 제도를 요구하고 새로운 법적 분쟁을 촉발합니다. 법학은 새롭게 변화하는 현재와 미래의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현대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임무를 또한 부여받고 있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논문 속에는 오래된 과거의 법적 주제가 현재와 미래의 법적 문제로 연결되는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어떤 논문이 오래된 이야기만을 연구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경우라 해도 그 역시, 현재 그 주제가 꼭 필요해서 선택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법학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곳입니다. 지난 50년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얼마나 빠르게 달라졌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공동체에서 법과 제도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고, 이는 변화하고 발전하는 법학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변화하는 한 시점, 현재에 서서 변화에 대응해야 할 부담을 지고 있지만, 우리의 선배들도 과거의 한 시점에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논문은, 변화하는 공동체의 문제를 풀기 위한 선배들의 노력과 유산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기초위에 이루어진 또 하나의 학문적 성취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그 성과물이 변화하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중요하고도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일반적 가을 졸업식은 겨울 졸업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성대합니다. 다만 법대는 로스쿨이 도입되고 1월에 변호사 시험이 치루어지면서 거의 대부분의 로스쿨생들은 겨울에 졸업하는 것으로 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 졸업식은 오늘처럼 일반대학원 석박사 학생들 위주로 조촐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학생은 38명 정도로 소규모이지만, 일반대학원 박사, 석사만 따지고 보면 겨울 졸업식보다 크게 적은 수는 아닙니다. 특히 한 학기에 20명 가까운 법학박사가 배출되는 것은, 다른 대학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큰 성과이고 이것이 우리 대학의 저력입니다.

오늘의 졸업식은 서울법대의 학문적 전통을 이어갈 박사와 석사들을 배출하는 자리입니다. 한국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배움을 단계를 넘어 스스로 사고하고 논문을 쓸 수 있는 학술연구의 한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 자리의 졸업생들은 오늘부터 배우는 학생에서 연구하는 학자로, 또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서울법대의 높고 순수한 학문적 정통성이 여러분들에게 내려가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석사학위를 받는 여러분들도 다시 박사과정으로 입학해서 학문의 길을 계속 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졸업생들은 너무도 오랜 기간 자신의 모든 것을 거의 포기하면서 논문 쓰기에 정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그 성과로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간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었던 높디높은 학문적인 허들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여기 있는 교수님들 모두 똑같은 경험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졸업생들이 느끼는 자긍심, 만족감은 여기 계신 교수님들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지에 오른 것을 서울법대 교수님들을 대표해서 축하하며 앞으로 더욱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신 서울법대 동창회의 우창록 회장님과 학생들을 교육하고 논문까지 지도해주신 법대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학문적 발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 종 보

노동법의 실천성을 좇은 학자

이 철 수 교 수

통상임금,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 조직형태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공무원노조까지. 노동자라면 한 번쯤은 겪어보거나 들어보았을 굵직한 노동법 쟁점들이다. 이철수 교수는 수십 년간 노동법 전문가로서 목소리 내며 노동법과 제도의 오랜 숙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데 기여해 왔다. 또 노사관계의 크고 작은 갈등 국면에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매듭짓기에 앞서 왔다. 정년을 맞은 이철수 교수를 법전원 17동에서 만났다.

노동법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에 관해 이철수 교수는 "자유와 정의가 실종되다시피 했던 시절,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노동법을 전공으로 택했다."라고 답했다. 특히 당시의 노동법에는 노동3권의 실종을 방불케 하는 독소조항이 많았는데, 이철수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연구자로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안고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철수 교수는 눈을 반짝이며 노동법이 걸어온 길에 관해 말을 이어갔다. 그는 노동법이 실천적인 법학이자 끊임없이 형성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즉, 노동법은 연역적으로 체계 아래 개념이 설정되고, 추론으로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노사관계 주체', '기술의 수준', '경제 상황', '사회적 맥락'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따라 생성, 발전하고 변화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법이 다른 나라 법을 계수하며 시작했지만, 노사관계 주체, 학자, 그리고 전문가의 땀과 노력으로 지금은 독자적인 법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현재의 과학은 미래의 상식이 되고, 현재의 정의는 미래의 법이 된다.'는 말을 언급하며 이 교수는 노동문제에 대해 법이 도입되고, 시행착오를 거쳐 다시 변화하는 것이 곧 노동법의 실천성이자 노동법학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이철수 교수는 중앙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노사관계 당사자를 오랜 시간 마주해 왔다. '조정의 명수'라는 별명에 관해 묻자, 이 교수는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는 견해를 밝히며 특히 노동문제에서 조정, 합의가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이 교수는 노동문제에서는 "모두 할 말이 있고, 때로는 모두 잘못도 있다."라며 '0 아니면 100'의 결론이 나기보다, 양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조정해 나가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말했다. 이런 믿음 속에 이 교수는 크고 작은 사건에서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목적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것이 법학자가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라는 이철수 교수의 말 속에서 어떤 주장이 더 옳은가만 판단하지 않고,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와 그들의 관계, 둘러싼 환경까지 아울러 보는 그의 관점이 돋보였다.

퇴임 이후의 계획에서 이철수 교수의 미래에 임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 "미래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다만 하루아침에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또한, 그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듯, 이철수 교수도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다. 노동법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고민을 맞이하고 있다. 후배 법학자에게 그는 노동의 미래 역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법은 미래에 대비해야 하기에 정의감과 과학적 태도를 견지하여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격려의 말을 남겼다.

법학전문대학원 15기 김용길 학생기자

「가인 김병로」 일본판 발간

한 인 섭 교 수

항일 변론가, 우리나라 법률의 초안자, 사법의 독립을 지켜낸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는 한인섭 교수에 의해 '법률 건국의 주역'이자 '민주 헌정 수호자'이자 '법조윤리 정신의 모범'으로 다시 설명된다. 지난 2017년 출간한 「가인 김병로」는 한인섭 교수가 10여 년간 1차 사료 수집 및 정리에 매진한 끝에 맺은 결실이었다. 그러나 그의 꿈은 국내에 책을 내는 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 일본판의 발간으로 연구의 나머지 절반을 완성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그의 눈빛에는 마침내 꿈을 이룬 학자의 해맑은 기쁨이 가득했다.

일본판 발간의 사명

한인섭 교수가 「가인 김병로」 일본판 발간을 숙원 사업으로 삼은 것은 일본인 독자들에게 김병로의 삶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김병로는 젊은 시절 도쿄의 메이지 대학에서 유학하며 법을 공부했다. 일본에서 일본법을 익혀서 항일 변론을 한 그의 행보는 언뜻 모순적으로도 보인다. 그러한 의문점에 대한 해명을 통해 한편으로는 일본 식민지 통치의 성격과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의 존재 목적에 대한 보편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한인섭 교수의 통찰이었다. 따라서 그는 일본의 일반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900페이지가 넘는 「가인 김병로」의 분량을 400페이지로 추려내는 완전한 재편집에 들어갔다. 재일동포 출신으로 한국 근현대사와 일본인의 관점에 대한 이해를 모두 갖춘 서승 교수에게 번역 작업을 부탁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아름다운 유대, 후세 다쓰지와 김병로

「가인 김병로」 일본판의 출판사는 후세 다쓰지 변호사의 손자가 오랫동안 사장으로 있던 곳이다. 후세 다쓰지는 2·8 독립운동으로 기소된 조선인 유학생들을 변론하는 등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조국에 맞선 인권변호사였다. 그는 김병로의 메이지 법대 선배였는데, 한인섭 교수는 메이지 법대에서 이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적연하게도 「가인 김병로」 일본판의 발간은 여러 차례 공동 변론을 했던 후세 다쓰지와 김병로의 첫 만남 이후 100년만인 2023년에 이루어졌다. 한인섭 교수는 긍지 어린 미소를 띠며 출판기념회에서 김병로의 손자와 후세 다쓰지의 손자가 만나 할아버지들을 회고하던 장면을 회상했다.

법률가의 이상(理想), 가인 김병로

학생들에게 법조윤리를 강의하는 한인섭 교수는 김병로가 한국사 속 특별한 법률가임을 넘어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 보편적인 법률가의 이상으로서 해석되고 기억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가인'의 '가'는 아름다울 佳 자가 아니라 거리 街 자이다. 조국이라는 집을 잃은 거리의 지식인 김병로는 지배국의 법정에서 지배국의 법으로 독립운동가들을 변론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인섭 교수는 이 지점에서 법의 양면성을 조명하며 '법이란 지배계층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에 의해 핍박당하는 사람을 위한 무기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 무기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김병로가 피난 당시 오른쪽 다리 절단의 고통도 잊은 채 정전 속에서 기초해낸 법조문들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법학전문대학원 15기 김민제 학생기자

아래로부터의 재현

양 현 아 교 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현아 교수가 일본군위안부 구술 증언집 영문판(Voices of the Korean Comfort Women: History Rewritten from Memories, Routledge, 2023)을 발간하였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뉴욕 뉴스쿨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1999년부터 지금까지 법사회학·젠더법을 연구하여 온 그에게, 법사회학의 관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구술 증언집이 가지는 의미, 또 영문판을 발간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물었다.

대리의 전제로서 재현

양현아 교수는 1999년 사회학도의 신분으로 법학을 처음 접했다. 뉴욕 지역 로스쿨의 페미니스트 법학, 소수자 법학 수업을 수강하며 자연스럽게 비판법학의 흐름을 만났던 그는, "법학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학문이라고 느꼈다."라며 당시의 생생한 소감을 전했다. 사례 연구 법률가로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representation을 위해 피해자의 경험을 재현하는 representation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리고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성문법의 해석과 도그마를 보완하려면 피해자들의 언어에 온전히 집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법사회학자로서의 지론을 밝혔다.

위안부 피해사실의 재현

피해자 중심주의, 국제인권법, 사회학, 그리고 양현아 교수의 학자로서 책임이 맞닿는 지점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있었다. 양현아 교수는 1999년 귀국과 동시에 일본군 위안부 구술 증언팀에 참여하여 그들의 피해사실을 연구하였고 2001년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 -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풀빛출판: 2001)를 출간하였다. 2000년 여성국제법정에서 한국 피해자 증언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낀 것이 주된 계기라고 한다. "판결에 적확한 피해사실이 적확한 언어로 '적시(address)'되었을 때 상당 부분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느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공적 표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깐요." 위안부의 구술증언을 확보하고 널리 전하는 것은 그들을 적절히 대변함으로써 회복적 정의를 끌어내는 초석이다.

영문판의 출간

20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영문판의 출간은 단순 기계적 번역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무엇보다 의미의 재탐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요하다. 90대 할머니분들의 고어(古語)를 원문 그대로 살린 국문 구술 증언집은 때때로 그 자체로 모호하고 중의적이다. 그러기에 번역에 앞서 그 의미를 다시금 온전히 이해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 "영감님 내 참 뭐라 불러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처럼 가슴 저린 표현부터 "징지가루" 같은 사투리까지 번역의 언어를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지적인 개념과 이론은 그 땅에서 배태됩니다. 국제인권법 분야에서 전시 성폭력 법리가 형성된 배경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식민지 시절 집단적 성폭력이라는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국제형사법에서도 우리 역사적 현실에 입각한 해석론을 구성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식민 통치를 겪은 수많은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식민 통치를 논하며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우리 집합기억의 일부가 되었다. 회복과 발전적 논의의 초석이 되는 아래로부터의 재현에 세심한 관심을 바란다는 후속세대들에 대한 부탁에서 양현아 교수의 무던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 13기 안재서 학생기자

범수범수 주현주현주현, 로스쿨 동명이인의 일상

김범수A, B 학생

김주현A, B, C 학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기에는 김범수 학생 두 명과 김주현 학생 세 명이 있다. 입학 후 한 학기를 보내고 여름방학이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이름의 색깔과 의미를 덧대어 가고 있는 다섯 명의 목소리를 모아 보았다.

동명이인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순간

김범수A 학생은 조 배정 명단을 확인하다가 자신의 이름 뒤에 알파벳이 붙은 것을 보고 의아해하던 순간을 기억한다. 다섯 학생은 모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졌던 법대 주산홀의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조 배정 명단을 계기로 동명이인의 존재를 확인했다. 성씨가 다른 동명이인 세 명 중 한 명으로 학부 생활을 했던 김주현A 학생은 '이번에는 성씨까지 똑같은 동명이인이 셋 있어 참 신기하다.'라고 느꼈던 소회를 이야기해 주었다.

내 이름에 붙은 알파벳과의 거리감

처음에는 이름 뒤에 붙는 알파벳이 조금은 어색하게 의식되었지만, 현재는 때와 장소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동명이인 학생들의 공통점이었다. 일상생활에서 구분이 필요한 영역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학기 초에 자신을 소개할 때 꼬박꼬박 B를 붙였던 김범수B 학생은 '그래도 B보다는 역시 A가 더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했었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다른 한편 김범수A 학생은 B(비)가 A(에이)보다는 한 음절이 줄어들어 소개할 때 효율적인 것 같다며 알파벳에 대한 장난 섞인 비평을 남겼다.

참을 수 없는 동명이인의 즐거움

밥값을 잘못 송금받거나, 누군가 동명이인을 부르는 목소리에 뒤돌아보는 등의 일이 소소하게 벌어지기는 한다. 그렇지만 동명이인으로 살아가는 일상에는 예상치 못한 장점이 훨씬 많았다. 김주현A 학생과 김주현B 학생은 학내 구성원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동명이인이라는 사실이 유쾌한 이야기 주제가 된다는 점을 기분 좋게 꼽아 주었다. 김주현B 학생은 역설적으로 동명이인이 있다는 특징 덕분에 기억에 더 잘 남는 것 같다는 흥미로운 추측도 들려주었다. 김범수B 학생은 장난스럽게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셔도 A 학생을 기다려 볼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성씨 때문에 항상 발표 순서가 앞쪽이었던 김주현C 학생 또한 동명이인 중 학번상 가장 마지막 순서가 되어 뒤로 배치되는 것이 색달랐다고 한다. 그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름 뒤의 알파벳이 A인지 B인지 물어보셨을 때 자신은 '사실 C'라고 대답하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던 에피소드를 덧붙였다.

나와 같은 이름의 친구에게

동명이인과의 접점을 물어보는 질문에 김범수 학생들은 배드민턴 동아리에서의 만남을 떠올렸다. 둘이 함께 '범수팀'을 이루어 다른 팀과 복식 경기를 한 추억이 남았다. 그러나 이후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손인사와 허리를 숙인 인사가 엇갈려 아쉬웠으니, 다음에는 꼭 서로 손 인사를 하자는 것이 김범수B 학생으로부터의 말이다. 동명이인 중 막내인 김주현A 학생은 '친해지고자 SNS 팔로우를 했지만, 학기 중 바빠서 실제로 셋이 모인 적은 없다.'라며 아쉬움을 밝히곤 2학기 중으로 시간이 되면 밥 한 끼 먹자는 수줍은 제안을 남겼다.

법학전문대학원 15기 김민제 학생기자

가비지 타임에 관하여

김민섭 학생

농구에서 이미 승패의 결정이 난 시간대를 가비지 타임(Garbage Time)이라고 한다. 주로 감독들은 주전선수의 체력 안배를 위해 선수를 교체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한다. 그러나 '포기하는 순간이 게임종료'라는 어느 명작 속 명대사처럼 역전이란 언제든 이루어지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후보 선수들에게는 코트를 누비는 것만으로도 이 시간이 값지다. 정규학기 종강과 계절학기 개강 사이 방학 어느 날 법학전문대학원 농구부 주장 14기 김민섭 학생을 만나 농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농구와 함께한 학창 시절

김민섭 학생은 중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꾸준히 학교 농구부에서 활동했다. 원래는 동네 친구들을 따라 이 운동 저 운동을 다 하다가 우연히 중학교 3학년 때 체육 과목으로 농구를 수강하게 되었고, 그때 NBA 미국 프로농구 경기 영상을 보면서 농구로 관심을 좁히게 되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농구부를 거쳐 학부에서는 자연대생 신분으로 인문대 농구부 주장을 맡은데 이어,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 농구부 주장을 맡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농구부는 4기 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전력은 소위 황금기였다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총장배 구기대회나 전국 로스쿨대회에서도 수상하여 트로피가 동아리방에 놓여있습니다." 그때 선배들이 지금까지 물질적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어 늘 감사하지만,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미안한 마음도 있다고 한다.

모두가 참여하는 농구

좋아하는 팀과 선수를 묻자, 망설임 없이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과거 주장 팀 던컨을 뽑았다. "제가 NBA를 즐겨보던 당시 농구는 코비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 등 슈퍼스타 한 명에게 공격로를 몰아주던 팀이 우승을 도맡았었습니다. 그런 지형에서 주전선수들이 고루 활약하여 득점하는 팀 농구를 보여준 것이 샌안토니오 스퍼스였고, 팀 던컨은 스퍼스의 상징 같은 선수입니다."라는 그의 호흡 긴 설명을 들으며 정신이 팔려 볶음밥을 태우고 말았다.

로스쿨 농구부가 기존의 주전 위주 연습방식에서 교육·기초연습 병행의 연습방식으로 바뀐 데에도 김민섭 학생의 이러한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 "농구 경험이 없더라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 세션을 마련하고, 연습경기도 진입장벽이 낮은 반코트 경기로 하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연습에 와준 만큼 부원들 모두에게 가치 있는 연습을 만들고 싶습니다."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 태도

농구부원들이 더 즐길 수 있도록, 버리는 시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들었을 때 즈음 칼국수 국물의 바닥이 보였다. 법무법인 실무수습이 끝난 다음 날에도 흔쾌히 인터뷰에 응하고 다음 날 있을 검찰 실무수습 출근 준비를 위해 떠나는 김민섭 학생을 보며, 가비지 타임은 그 시간을 붙잡지 못해 흘려보낸 사람의 항변 섞인 명명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법학전문대학원 13기 안재서 학생기자

놀러오세요, '숨결'으로

고소영, 이현아, 강예지, 송채은 학생

게임 '놀러오세요 동물의 숲',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주인공과 너구리, 하마, 부엉이는 모두 숲속 마을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주민이다. 올해 인권법학회에서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세상에 관해 고민하는 이들이 모여 동물권 소모임의 시작을 알렸다. 무더운 여름날,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동물권 소모임 '숨결'의 모임원(14기 고소영, 이현아, 강예지, 15기 송채은 학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물이, 그리고 인간이 나누는 '숨결'

동물권 소모임을 처음 꾸린 강예지 학생은 "입학할 때부터 동물권에 관심이 많았지만, 법학 공부를 하며 수업 시간에 동물권에 대해 다룰 기회는 많지 않았다."며 원우들과 동물권에 관해 이야기할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는 모임 창설의 계기를 밝혔다. 반신반의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만들고 나니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아 18명의 모임원과 함께 세미나, 책 모임 등 첫 학기 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소모임의 이름은 공모를 통해 '숨결'으로 정해졌다. 아이디어를 낸 송채은 학생은 "친근하면서도, 전체 동물을 모두 아우르는 이름을 찾고 싶었다."며 "모든 동물이, 인간까지도 생명이 붙어있다는 점에 착안해 숨결이라는 이름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인권법학회에서 동물권을 주제로 꺼내다

동물권 소모임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안에 둥지를 틀었다. 모임원들은 인권과 동물권이 무슨 관계를 갖는 거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이현아 인권법학회장은 "동물권에 관해 논의할 때 동물은 불쌍하고 고통받는 대상, 인간은 착취자라고 이분법적으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지어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그런 이분법을 넘어서면 인권 부문에서의 고민을 동물로도 범위를 넓혀보며 인권과 동물권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임원들은 '동물과 함께 살아보자'는 관점에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강예지 학생은 "'동물을 옹호함으로써 인간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동물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사람 살기도 바쁜데, 동물까지 생각해 줘야 해?'라는 인식을 조금씩 바꿔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동물과 법, 나아갈 길

법에서 동물권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냐는 물음에 고소영 학생은 "'숨결'의 첫 세미나에서는 민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해 다루어 보았다."며 우리 법에서 동물은 그 보호의 대상도 한정적이고, 동물의 권리 주체성은 고려되지 않아, 아직 법제적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채은 학생은 동물권 이슈는 법적 측면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영역인 만큼, 그동안 동물에 관한 발의됐던 입법안을 주제로 함께 논의해 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학기 소모임장을 맡게 된 송채은 학생은 지난 학기 같은 알찬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숨결' 모임원이 아니어도 원우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어 "점차 더 많은 반려동물이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하는 상황에서, 법조인이 다양한 법적 분쟁에서 동물 이슈를 접할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며 동물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숨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법학전문대학원 15기 김용길 학생기자

민법 암기를 넘어 음미(吟味)하기: 법령경연 학술대회 우승팀

백인서, 최재현, 이연하 학생

14기 백인서, 최재현, 이연하 학생은 제9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친권상실 등의 선고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후견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제안했고 최우수상(1위)을 받았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법무부 정책추진 시 참고될 예정이다. 시의적절한 이슈를 포착해내고 그에 맞추어 법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공부하며, 실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성을 갖춘 개정안을 만들어낸 그들의 열정을 청했다.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참가한 계기

백인서 | 1년간 여러 법을 접하며 기본적인 이해를 갖췄습니다. 이제 이걸로 뭔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특히 자율적으로 법을 탐구하는 기회를 얻고자 이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최재현 | 학부 재학 중 국회의원실에서 대외활동을 하며 입법 개정안 발의 활동을 했습니다. 유관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특히 이 대회를 선택했습니다.

이연하 | 실무에 나가기 전까지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특히 이런 입법 개정 같은 경우 흔히 경험해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출전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과 극복한 방법

백인서 | 저희가 다룬 법률은 민법 중에서도 친족법인데요. 당시 배우지 않은 범위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친족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개선점을 제시한다는 게 어려웠는데요. 「친족법 강의」라는 교과서로 공부했고 논문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또 친족법은 물권법이나 채권법보다는 약자 보호에 주안을 둔 법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문 기사나 인터뷰를 많이 찾아보며 시민들이 마주한 실제 이슈들을 파악(issue spotting)하여 극복했습니다.

「민법」 중 친족법 부분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

최재현 | 저희의 개정안에 넓이와 깊이가 동시에 있어야겠다고 느꼈어요. 넓이는 조문 한두 개만 바꾸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주제를 잡고 법률 전반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깊이는 위임법률이나 법령까지도 체계적이고 정치하게 정비할 수 있는지의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이며 깔끔하게 규정된 민법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제시한 친족법 개정안에 관해

이연하 | 먼저 현행 민법상 '미성년 후견인 제도'는 친권 부재 및 상실 등 사유가 없으면 실제 친권자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도 후견을 개시할 수 없어요. 그런 사유가 있더라도 실무상 친권 상실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미성년 후견을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주체가 후견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인도 후견인을 할 수 있다든가 말이죠. 또한 '위탁 보호자 제도 신설' 같은 경우, 가정 위탁 사업이 「아동복지법」상 있기는 하나 일시적인 조치를 염두에 둔 규정임에도 실질적으로는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장기간 위탁이 이어집니다. 이때 위탁가정 부모는 법정대리인과 분리돼 있기에 긴급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아동 생명과 직결된 사안은 위탁보호자에게 제한적으로 법정 대리권을 부여하고, 그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나 아동의 복리를 위한 경우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였습니다.

89개 팀 중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여러분만의 강점

백인서 | 저희의 개정안은 미성년자나 위탁 보호를 받는 분들의 권리 행사에 있어 공백을 메우고자 했기에 심사위원의 공감을 사고 실질적인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현 | 참신성을 강조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바로바로 떠오르는 주제들은 논의가 많이 진전된 것들이라, 그러한 주제로 탐구하다가도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주제를 찾았습니다.

이연하 | 시상식에서 법무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제 맡으셨던 사건 중 친권 상실 선고가 없어서 미성년 후견을 개시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분께서도 관련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는데 마침 저희가 방법을 제시한 것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14기 최승훈 학생기자

교육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임민희 교육펠로우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는 공익법률센터, 학문후속세대 양성센터를 비롯하여 여러 부속기관이 있다. 그 중 교육지원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의 실무교육, 학생 지도, 법률 자문을 위하여 2020년 2월에 설립된 기관이다. 법전원생이라면 첫 학기부터 교육펠로우 변호사들의 세심한 지도를 받으며 교육지원센터의 존재를 인식하였을 터이지만, 업무가 재학생을 향해있다보니 졸업생 또는 외부인과의 접점은 많지 않다. 이에 교육지원센터 임민희 교육펠로우 변호사를 만나 센터에 관해 물었다.

Q. 교육지원센터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곽신재, 김혜린, 이유영, 그리고 저 총 네 명의 교육펠로우 변호사가 이계정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유영 변호사가 재판연구원 준비생 조력을 담당하고, 다른 3인의 변호사가 다른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Q. 교육펠로우 변호사의 업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첫째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학 답안지를 첨삭하고 개별강평을 제공하는 '펠로우세션'을 진행합니다. 둘째로, 변호사시험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의 교내 모의고사 답안을 채점 및 강평합니다. 셋째로, 학생 상담을 진행합니다. 개별 교수님들의 요청에 따라 과목별 노력이 필요한 학생에게 먼저 다가가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경우에도 학업이나 진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사람들이 교육펠로우로 지원하는지, 또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업 법조인으로서 충분히 챙기지 못했던 개인 시간을 확보하고 학교의 분위기를 다시 느끼고자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로펌 건설팀에서 근무하며 건설행정법 박사과정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원을 다녀오는 KTX 안에서 수업을 들어야 할 정도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고, 보다 공부에 집중하고자 학교에 왔습니다. 막상 일하면서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이 직업 자체가 매우 보람차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Q. 종전 직장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가장 큰 장점은 일하는 보람인 것 같습니다. 상담을 거친 학생들의 답안 작성 능력이 향상되거나, 조금이라도 마음을 편히 가지게 되는 것을 보면 기쁘고 뿌듯합니다. 물론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단점은 이런 장점의 뒷면과도 같아요. 긴 시간을 투자하여 서면을 쓰고 변론하여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 소송변호사로서의 성취감을 느끼고 싶을 때도 있어요. 종전 직장 동료가 그리운 것은 당연하고요.

Q. 어떠한 사람에게 교육펠로우 변호사 지원을 추천하시나요?

타인에게 관심 많고, 도와주고 가르치는 일에 보람 느끼는 사람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지원자 개인의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일하니 법학 과목 박사과정을 하거나 연구하는 분이라면 최적의 근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학생상담을 마치고 나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변호사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저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제 일에 더 충실해야겠다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요. 법조인의 삶을 열정적으로 시작하게 될 로스쿨 학생 모두를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13기 안재서 학생기자

제1회 SNU Law 공익법 캠프 성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2023. 6. 26.(월) ~ 2023. 6. 28.(수), 3일간 공익인권법에 관심 있는 서울대 학부생을 대상으로 '제1회 SNU Law 공익법 캠프'를 개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익인권 문제와 맞닿아 있는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법적 관점에서 인권 이슈를 다루어보는 것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총 61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청소년/장애인권/이주노동 3개 분반으로 나뉘어 로스쿨 임상교수와 함께 사전교육과 현장방문, 분반활동을 진행하였다.

캠프 1일차는 김종보(서울대 법전원)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이후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김채윤 전문위원의 인권교육, 유엔난민기구(UNHCR) 소속 법무담당관 이탁건 변호사의 특강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강 이후 학생들은 각자 소속된 분반 강의실로 자리를 옮겨 팀을 나누고 마지막 날 있을 발표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활동에 앞서 사전교육이 진행되었다. 1분반(아동청소년)은 마한얼(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자립준비 청년 지원 대책과 현황"을 주제로 진행하였고, 2분반(장애인권)은 이수연(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가 "발달장애인 지원의 문제와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주제로 교육하였다. 또한 3분반(이주노동)은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과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주제로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교육을 진행하였다.

캠프 2일차는 분반별로 각자 현장에 방문하며 관련 활동을 진행하였다. 먼저 1분반(아동청소년)은 센터 소라미 부센터장, 전정환 지도변호사와 함께 관악구에 위치한 들꽃 청소년세상 시설을 방문하고 안산지역 자립시설 등을 방문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현장을 경험하였다.

2분반(장애인권)은 센터 김재왕 임상교수, 오진숙 지도변호사와 함께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진행하는 발달장애 이슈 관련 부모연대 화요집회에 참석하고, 발달장애인이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3분반(이주청소년)은 최정은 임상교수, 박현서 지도변호사와 함께 영등포구에 위치한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를 방문하였고, 섹 알 마문 감독의 '노 웨이 아웃' 다큐를 함께 감상한 후 감독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이후 마포구 이주노조로 이동하여 이주노조 정영섭 활동가의 특강을 청취하고 이주노조와 함께 간단한 간담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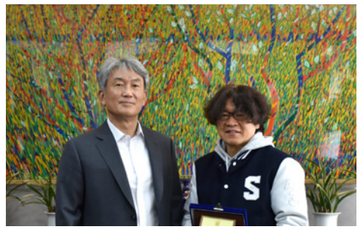
캠프 3일차 오전은 그 간 청취한 특강 내용과 각 분반별 활동내용 등을 공유하며 팀별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3일간 논의하여 조사한 내용과 이번 캠프를 통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카드뉴스, ppt, 포스터 등 자유형식으로 오후 팀별 PT를 준비하였다. 오후에는 팀 발표 전 현재 다양한 공익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들과 함께 공익진로와 활동에 대한 진로특강을 진행하였다. 센터 김인희 지도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가운데 입법/의정활동에 관하여 박수빈(서울시의원) 변호사, 공익활동에 관하여 박지혜(플랜 1.5) 변호사, 법률구조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 지원팀의 윤성묵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생들은 진로특강을 통해 그 간 공익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궁금점들을 해소하고, 현장가들의 활동 내용 등을 간접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후 캠프 마지막 순서로 오전에 준비한 팀별 발표가 진행되었다. 1분반(아동청소년)은 "자립준비청년(아동보호시설 퇴소)에게 필요한 제도는 무엇일까요?"를, 2분반(장애인권)은 "발달장애인은 무슨 지원이 필요할까요?"를, 3분반(이주노동)은 "이주노동자는 어떤 차별을 받고 있을까요?"를 주제로 분반별 팀을 구성하여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를 끝으로 3일간의 캠프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다.

참여한 학생들은 이와 같이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 좋았고, 공익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어 좋았다는 평을 남겼다. 또한 한 학생은 누구나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인권 보장에 관한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소식

마상소프트 강삼석 회장, 서울대 법전원 1억원 쾌척

(주)마상소프트 강삼석 대표이사가 법학전문대학원에 1억원의 기부금을 쾌척했다.
이에 3월 23일(목) 법학전문대학원 김종보 원장, (주)마상소프트 강삼석 회장과 이지현 이사 부부, 전종익 교무부원장, 최준규 학생부원장, 최석환 최고지도자과정(ALP) 부주임교수 등 주요 교내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식 행사를 개최했다.
강삼석 대표이사는 게임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게임보국'을 실천하고 있으며, (주)마상소프트는 부산 사랑의열매에 1억 원을 기부하고 나눔 명문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2016년부터 기부 전용 아이템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2023년 '봄맞이 점심' 행사 개최

2023년 3월 30일(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72동 서암관에서 '봄맞이 점심' 행사가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학생 및 교직원을 포함한 모든 법대 구성원이 함께 모였다. 스탠딩 파티로 진행된 식사 자리에서는 많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자리를 오가며 담소를 나누었다. 법학전문대학원 김종보 원장은 "캠퍼스에 찾아온 봄 기운을 함께 즐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인사를 전하였다.

미국 UC Irvine Law School 원장 접견

법학전문대학원 김종보 원장은 4월 12일(수) 미국 UC Irvine Law School의 Austen Parrish 원장, Khary Hornsby 부원장 등 5인으로 구성된 방문단과 접견을 갖고, 양교간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종보 원장과 Austen Parrish 원장은 학생교환 협정 및 공동연구 등 국제교류에 대한 협의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법전원 주요 시설물 등을 둘러보았다.

2023년 법전원 봄 축제 'ㄷLaw잉'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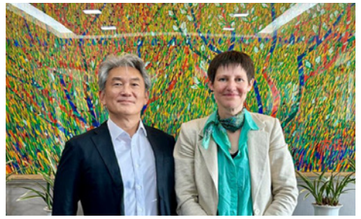
2023년 5월 4일(목) 법학전문대학원 중앙광장과 15동 일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봄 축제 'ㄷLaw잉(드로잉)'이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에서는 로스쿨 생활을 주제로 한 학생들의 사진이 15동 곳곳에 전시되었으며, 중앙광장에서는 굴렁쇠 굴리기, 물총 쏘기, 트램펄린 타기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게임이 진행되어 축제의 분위기가 완연했다. 15동 김·장·리 홀에는 '네 컷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 부스가 설치되어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기도 했다. 저녁에는 4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 내에서 진행된 학생 탁구 토너먼트 대회의 결승전이 열렸다.
축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번 봄축제가 다양한 콘텐츠로 학교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리가 되었다며 학생회에 감사하는 소감을 전하였다.

2023년 법학전문대학원 체육대회 개최

법학전문대학원 15대 학생회, 체육대회 추진위원회, 운동부 협력체는 5월 6일(토) '202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참가 학생들은 기숙사 체육관에서 굴렁쇠 굴리기, 축구, 배드민턴, 야구/농구 미니게임, 피구, 계주, 이벤트 계주 등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겼다. 청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각자 응원하며 시상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분위기는 한껏 무르익었다.
이날 체육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사전 신청자와 현장 추가 참여자를 합하여 약 70명이 넘었다. 이들은 '경기 중에 어느 한 명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팀을 가리지 않고 응원해주는 모습과 경기 내내 웃으면서 뛰어다니던 시간은 아마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다(15기 김유신)', '체육대회 동안은 다른 걱정이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등을 내려놓고 오롯이 학우들과 어울려서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15기 김성윤)' 등의 호평을 남기며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다음 체육행사의 개최를 희망했다.

독일 Univ. of Munich, Faculty of Law의 Beate Gsell 학장 접견

법학전문대학원 김종보 원장은 6월 5일(월) 독일 University of Munich, Faculty of Law의 Beate Gsell 학장과 접견을 갖고, 양교간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Gsell 학장은 이후 법전원 주요 시설물을 둘러보았다.



오스트레일리아 ANU, College of Law의 Anthony Connolly 학장 접견

2023년 7월 27일(목)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ANU), College of Law의 Anthony Connolly 학장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했다. 법학전문대학원 김종보 원장은 원장실에서 Anthony Connolly 학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ANU가 교류할 방안을 논의했다.

제14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Mooty's팀' 최종 우승

2023년 8월 11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제14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Mooty's팀이 1위를 차지해 최종 우승하였다. 서울대 법전원 Cubic Box팀 역시 2위로 선정되어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Cubic Box팀 팀장인 서울대 법전원 이다연 학생은 최우수 변론을 하여 Best Operator로 선정됐고, 최우수 서면을 제출한 Spicy Pepperoni Snacks팀(서울대)은 Best Memorial에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서면 제출 및 모의재판 진행 등 모든 단계에서 영어가 사용된다. 특히 이번 제14회 대회에는 12개 팀이 예선에 참여했으며, 서면 심사 결과 8팀이 8강전에 진출, 대회 당일 구두 변론 진행해 최종 우승팀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의 쟁점은 'SPS 협정'이었으며 국제통상 분쟁해결에 관심이 있는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이 2명 이상 4인 이하의 팀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제10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팀 최종 우승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특허법원에서 열린 「제10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결선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15기 김택민, 조승완, 최서린 학생)이 특허 부문 1위를 차지해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24개 팀이 특허법원 판사로 이루어진 심사위원 앞에서 소송변론 기량을 겨루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는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역대 최다인 62개 팀이 참가했으며, 최종 1위에 오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팀의 15기 김택민 학생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훌륭한 실무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2022학년도 후기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개최

2023년 8월 29일(화) 오후 3시 '2022학년도 후기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84동) 주산홀에서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김종보 원장은 졸업생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여러분의 연구가 과거부터 축적된 학문적 업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음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공동체의 미래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역할을 숙명으로 삼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법과대학동창회 우창록 회장은 "문제의 원천에 학문적 독창성을 가지고 접근하여, '한국 법학'을 세계에 만들고 전수해 나가시길 바란다."며 그 과정에서 동문 선배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시기를 권한다고 덧붙였다. 답사를 맡은 신혜진 박사(법학박사)는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무너진 순간들을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섰다."며 "학자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장하시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위수여식에는 전문박사 3명, 전문석사 1명, 일반석사 15명, 일반박사 19명 등 총 38명의 학생의 학위수여가 이뤄졌다.

2023년 '제1회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학술대회' 및 'SNU Law 연구자포럼 제3기 수료식' 개최

2023년 8월 19일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가 주최하는 '제1회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학술대회' 및 'SNU Law 연구자포럼 제3기 수료식'이 개최되었다.

다양한 전공의 학문후속세대가 각자의 연구주제를 공유하고 학문적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전상현 교수(센터장/서울대 법전원)의 축사로 개회된 본 행사는, 센터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별로 박사후연구원 – 연구펠로우 – 연구자포럼의 세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먼저 박사후연구원 세션에서는 조아영 박사가 '커먼즈로서의 해양과 공공신탁이론'을, 강혜아 박사가 '채권의 보호범위와 위법성 판단'을, 이연 박사가 '중국 국제사법상 근로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담론'을 발표하였다. 이어진 연구펠로우 세션에서는 이경호 연구펠로우가 '법의 권위와 정당화'를, 정의석 연구펠로우가 '독일 공법상 계약법리의 개관'을 발표하였고, 마지막으로 진행된 연구자포럼 세션에서는 박진영 연구자가 '법의 표현적 기능에 관한 소고'를, 임현경 연구자가 '명령된 감정, 행위하는 감정'을, 이무룡 연구자가 '계약 청산에서 원상회복의 준거법 결정'을, 김세연 연구자가 '가상자산에 관한 자금세탁방지규제 재검토'를, 이종욱 연구자가 '합자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행위가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에 의하여 불공정하게 또는 이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유한책임사원이 취할 수 있는 상법상 구제 수단'을 발표하였다.

발표자들과 참석 연구자들은 각 세션의 마지막에 마련된 종합토론 시간에 민법, 환경법, 법정책학, 행정법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주제들에 관하여 활발한 토의를 이어갔다.

학술대회 종료 후에는 SNU Law 연구자포럼 제3기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이성범 교수(센터 전문위원/서울대 법전원)는 지난 1년간 진행되었던 연구자포럼 프로그램의 일정을 되짚고 참여자들이 작성한 논문의 학술지 게재현황을 소개하며, 탁월한 학술적 성과를 이루어낸 참여자들의 수료를 축하하였다.

연구소·센터 소식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학생지원센터, 국제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2023년 3월 23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김장리홀에서 '2023학년도 1학기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되었다. 30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국제학생을 대상으로 학위 프로그램 안내, 학사일정 및 수강신청 안내, 캠퍼스 생활 및 법대 시설 소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오리엔테이션이 종료된 이후에는 학생과 스태프가 한곳에 모여 준비된 식사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었다.

국제학생지원센터(센터장 최준규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하는 국제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 8월 22일(월)자로 설립된 신생 기관이다. 국제학생의 연구와 행정 및 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적인 한국법 연구자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법센터,엘리자베스 폴먼(UPenn 로스쿨) 교수 초청 강연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는 회사법과 스타트업 분야 연구에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각광을 받는 미국 UPenn의 엘리자베스 폴먼(Elizabeth Pollman)교수를 모시고 "Adventure Capital: From Startup Governance to Failure and Beyond"라는 제목하에 스타트업의 지배구조, 벤처캐피탈의 투자, 스타트업의 성공과 실패 등 스타트업 일생 주기에 걸쳐 여러 이슈들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주제 : Adventure Capital: From Startup Governance to Failure and Beyond
일시 : 2023. 6. 14(수) 오후 2:30
장소 : 우천관(15-1동) 201호

제88회 & 제89회 공익산업법센터 학술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023년 4월 7일 '통신시장의 구조변화와 규제체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제88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희정 교수(고려대 법전원)의 사회로 곽정호 교수(호서대 빅데이터AI학부)가 '통신시장의 경쟁상황과 규제개편의 필요성'이라는 [제1주제]로, 신민수 교수(한양대 경영학부)가 '전송사업자 규제와 법적 과제'라는 [제2주제]로,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전원)가 '정보사업자 규제와 법적 과제'라는 [제3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원우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사회를 맡았고 이희정 교수(고려대 법전원), 송시강 교수(홍익대 법과대학),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박성호 회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윤상필 실장(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김경만 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재철 국장(방송통신위원회)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하였다.

2023년 5월 26일 '데이터 이동성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접근권 보장의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제89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희정 교수(고려대 법전원)가 사회를 맡은 [제1주제] 발표에서는 '민간부문의 데이터 이동성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접근권 보장의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이진규 이사(네이버)가 발표하였다. [제2주제] 발표에선 '공공부문의 데이터 이동성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접근권 보장의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윤주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발표하였고, [제3주제]에서는 '의료부문의 데이터 이동성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접근권 보장의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배현아 교수(이화여대 법전원)가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원우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사회를 맡았고 이성엽 교수(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이해원 교수(목포대 법학과), 박상민 교수(서울대 의과대학),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성석함 실장(SKT), 양청삼 국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아울러 2023년 5월 31일, 등재학술지 '경제규제와 법' 제16권 제1호를 발행하였다.

제90회 공익산업법센터 학술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023년 6월 30일 '생성형 AI, 기회와 우려, 그리고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제90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희정 교수(고려대 법전원)의 사회로 김병필 교수(KAIST 기술경영학부)가 '생성형 AI와 개인정보보호'라는 [제1주제]로, 하주영 변호사(스캐터랩)가 '생성형 AI와 지식재산권'이라는 [제2주제]로, 윤혜선 교수(한양대 법전원)가 '생성형 AI와 리스크관리'라는 [제3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원우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사회를 맡았고 이대희 교수(고려대 법전원), 권은정 박사(KISDI), 이현규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성석함 실장(SKT), 송대섭 이사(네이버), 엄열 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공익인권법센터, 공동학술대회 '한국 사회의 인권 책무-시공간의 확장'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인권학회·인권법학회는 2023년 5월 13일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1층 최종길홀에서 '한국 사회의 인권 책무-시공간의 확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김종철 회장(인권법학회)의 개회사와 이우영 센터장(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제1부 '역사 부정의와 국가책임', 특별 세션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화의 평가와 과제', 제2부 '인권 현안과 인권 책무의 다층성', 제3부 '인권 책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시공간적 확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한국의 국가행위자와 시민사회 구성원의 인권 의무와 책임을 다면적으로 고찰하였다.

법이론연구센터 콜로키움 개최

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 교수)는 법학의 근본문제와 연관된 다양한 주제의 콜로키움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에는 네 번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2023년 3월 29일 제44회 콜로키움에서는 윤진수 명예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변경"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윤진수 교수는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른 판례변경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서 하나의 고려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설시한 점은 수긍하기 어렵고, 근본적으로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내지 성별정정은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고 논하였다.

4월 26일 제45회 콜로키움에서는 김창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한다"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창록 교수는 일본 기업에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라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의 내용과 의의를 정리한 뒤, 그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반발과 공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논하였다. 그리고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이라고 불리는 정부의 해법이 갖는 역사적·법적 의미를 한일 과거청산과 식민지지배 책임이라는 인류적 과제의 맥락 속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논하였다.

5월 31일 제46회 콜로키움에서는 윤세리 법무법인(유) 율촌 명예대표변호사 겸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이 "법과 시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윤세리 이사장은 법과 권리·의무는 시공간에서만 존재하는 바, 시간은 변화에 부정적인 법의 태도로 인해 대체로 권력자와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남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급변하는 21세기에 법이 사회나 시장, 기술과 문화 같은 적용대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 법규범의 공백 상태가 초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해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논하였다.

6월 28일 제27회 콜로키움에서는 이해윤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학과) 교수가 "법의 명확성 원칙과 언어의 불명확성"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해윤 교수는 법은 성격상 명확하게 표현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반면 언어는 그 속성상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언어기호의 불명확성에 대한 논리학, 심리학, 언어학, 그리고 법학에서의 다양한 해석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이 교수는 인간의 인지적 능력에 기초한 적합성 이론(relevance theory) 틀에서 모호한 표현들을 명확히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해석 방법이 법학에서 제시되어온 기존의 해석방법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도 함께 논하였다.

제3회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공모

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 교수)가 올 하반기 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 등 기초법학 분야의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논문을 공모한다. 올해로 제3회를 맞이하는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은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이론연구센터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후원하는 학술상이다. 응모대상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휴학생 포함)과 법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휴학생, 연구생 포함)으로, 대상(1편) 수상자와 우수상(2편)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300만 100만 원이 수여된다. 논문 제출 기간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이론연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수상 논문은 법이론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연간 학술지 『기초법학연구』에 게재될 예정이다.

제2회 Journal of Korean Law 학생편집위원 활동인증서 수여식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이재민 교수)는 2023년 4월 28일(금)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김장리홀에서 제2회 Journal of Korean Law 학생편집위원 활동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학기에 걸쳐 학생편집팀에서 JKL의 발행에 기여해 온 학생편집위원 20명에게 활동인증서가 수여되었다. 아태법연구소장 이재민 교수, JKL 편집위원장 이재협 교수 및 이종혁 교수가 참석하였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방문단 접견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는 우천법학관 204호 세미나실에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방문단을 접견하였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측에서 Saldi Isra 인도네시아 헌법재판관(부소장), Muhidin 서기장, Indah Apriyanti AACC(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고, 서울대 법전원 측에서 이재민 아태법연구소장, 이계정 부소장, 전종익 교무부원장, 강광문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인도네시아와 서울대 간의 국제교류협력에 대하여 의논하고, 기념품 및 출간물을 교환하였다.

릴레이 도서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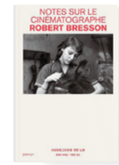
릴레이 도서 추천은 법대 구성원들이 고민하면서, 때로는 휴식하면서 읽을만한 책을 여러 교수들이 차례로 추천하는 특집입니다.

이성범 교수

우리는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진은영 시인의 작품을 참 좋아합니다. 2022년 시인은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라는 시집으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슬쩍 끼워 넣어 같이 추천합니다.), 근자에 문득 이를 다시 읽으면서 예전의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우리는 매일매일」이 자연스레 떠올랐습니다. 부드러운 시적 호흡 안에서 빛나도록 정제된 시어들이 들려주는 시상의 아름다움과 의로움은 마주할 때마다 문학에 대한 건강한 감탄을 불러옵니다.

진은영 | 문학과지성사 | 2008



시네마토그라프에 대한 노트

영화감독 로베르 브레송이 쓴 짤막한, 말 그대로 노트입니다. 영화 자체와 영화 만들기에 관한 내용을 짧고 영롱한 문장들 안에 꾹꾹 눌러 담고 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는 의미의 잔향이 행간과 여백에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표백된 생각이 그저 곱게 쓰인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야전교범(野戰敎範)과 같은 성격이 배어 있는 책으로서 자경문(自警文) 스타일의 문장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책장 말고 서랍에 넣어 두었다가 가끔 꺼내어 열어 보고 한동안 바라보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로베르 브레송 | 문학과지성사 | 2021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

근래에 읽었던 소설 중에 독창적이며 몰입감 넘치는 서사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작품입니다. 작가는 자연과학계 영웅들(하이젠베르크, 슈뢰딩거, 슈바르츠실트 등)을 소환하여 논픽션과 픽션을 불규칙하게 넘나들며 그들의 정신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지적 응축과 파열을 진하고 또 아련하게 그려냅니다. 특히 제발트(W. G. Sebald)의 「토성의 고리」 등을 읽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또 슬쩍 끼워 넣고 추천합니다.), 제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적극 추천합니다.

벵하민 라바투트 | 문학동네 | 2022

암컷들

도발적인 책 표지와 제목처럼 내용 역시 기존의 통념에 대해 도전적이며 거침없는 문제의식을 보여줍니다. 진화생물학의 영역에서 과학의 시선이 남성중심적 사회문화의 영향에 얽혀 성과 관련된 생물학적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그야말로 맹렬하게 드러냅니다. 자연사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저자의 서술은 명쾌하며 실제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느낌도 선사합니다. 사회문화적 편견이 은밀하게 과학적 관찰과 사고에 침투하여 이를 마비시킨 듯한 모습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점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루시 쿡 | 웅진지식하우스 | 2023

SNU Law 人 캠페인 안내

SNU Law 人 캠페인은 매월 1만 원(1구좌)으로 서울법대를 후원하는 정기후원 캠페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서울법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SNU Law 人 기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사회공헌기금 – 공적마인드를 갖춘 법률가 및 사회적 리더의 자격을 갖춘 서울법대 人 양성
  교육장학기금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서울법대 人 양성
  학술연구 – 미래지향적인 법학 연구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자로서 서울법대 人 양성
  일반기금 – 서울법대 교육 및 인프라 구축

- SNU Law 人에게 드리는 혜택

  1. 세제 혜택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2. 네이밍 예우
     서울법대 홈페이지, 정의의 종 등에 기부자 명단 게재
  3. SNU Law Family 머그컵 증정
     1만 원(1구좌) 이상의 정기후원을 약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SNU Law Family 머그컵 증정

- SNU Law 人 캠페인 참여방법

  1. 온라인 기부페이지(신용카드, 계좌이체, CMS 신청가능)
     - http://secure.donus.org/snulaw
     -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연결 됩니다.
  2. 전화·이메일
     - 전화. 02.880.2448
     - 이메일. lawgiving@snu.ac.kr
     - 카카오채널. snulawfund

Next Decade 기금(발전기금) 안내

서울법대의 미래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약정 문의

- 전화·이메일
  전화·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 방문
  방문해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전화. 02.880.2448

팩스. 02.889.7196

이메일. lawgiving@snu.ac.kr

주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2동 615호

세제 혜택

- 개인기부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 공제)
- 법인기부자
  당해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세제혜택 비교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기부 시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지정기부금에 비해 더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구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내용	사립학교, 국가지방단체,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등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단체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100%	소득금액의 50%	소득금액의 30%	소득금액의 10%
해당기관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여타 기관	

법학발전재단 및 발전기금 출연현황

2023. 3. 1. — 2023. 8. 31.

정철호	10,000	2023.03.08
김정민	10,000	2023.03.08
강윤구	10,000	2023.03.08
이종준	10,000	2023.03.08
윤아현	10,000	2023.03.08
석소현	10,000	2023.03.08
이창규	10,000	2023.03.08
이종화	50,000	2023.03.08
유석호	50,000	2023.03.08
이현선	50,000	2023.03.08
오태욱	100,000	2023.03.08
신혜주	50,000	2023.03.08
박진호	10,000	2023.03.08
김지수	10,000	2023.03.08
김다연	30,000	2023.03.08
박은정	10,000	2023.03.08
박상록	10,000	2023.03.08
이윤진	10,000	2023.03.08
김효준	10,000	2023.03.08
강희철	100,000	2023.03.08
박정현	30,000	2023.03.08
신동일	70,000	2023.03.08
구현정	10,000	2023.03.08
홍성혜	10,000	2023.03.08
한국도선사협회	15,000,000	2023.03.08
청파장학재단	9,308,600	2023.03.13
김효준	10,000	2023.04.06
강희철	100,000	2023.04.06
박정현	30,000	2023.04.06
신동일	70,000	2023.04.06
구현정	10,000	2023.04.06
홍성혜	10,000	2023.04.06
정철호	10,000	2023.04.08
김정민	10,000	2023.04.08
강윤구	10,000	2023.04.08
이종준	10,000	2023.04.08
윤아현	10,000	2023.04.08
석소현	10,000	2023.04.08
이창규	10,000	2023.04.08
이종화	50,000	2023.04.08
유석호	50,000	2023.04.08
이현선	50,000	2023.04.08
오태욱	100,000	2023.04.08
신혜주	50,000	2023.04.08
박진호	10,000	2023.04.08
김지수	10,000	2023.04.08
김다연	30,000	2023.04.08
박은정	10,000	2023.04.08
박상록	10,000	2023.04.08
이윤진	10,000	2023.04.08
김유진	100,000	2023.04.14
봉욱	300,000	2023.04.14
김민형	1,100,000	2023.04.14
박혜원	100,000	2023.04.14
정철호	10,000	2023.05.08
김정민	10,000	2023.05.08
강윤구	10,000	2023.05.08
이종준	10,000	2023.05.08
윤아현	10,000	2023.05.08
석소현	10,000	2023.05.08
이창규	10,000	2023.05.08
이종화	50,000	2023.05.08
유석호	50,000	2023.05.08
이현선	50,000	2023.05.08
오태욱	100,000	2023.05.08
신혜주	50,000	2023.05.08
박진호	10,000	2023.05.08
김지수	10,000	2023.05.08
김다연	30,000	2023.05.08
박은정	10,000	2023.05.08
박상록	10,000	2023.05.08
이윤진	10,000	2023.05.08
김효준	10,000	2023.05.08
강희철	100,000	2023.05.08
박정현	30,000	2023.05.08
신동일	70,000	2023.05.08
홍성혜	10,000	2023.05.08
정철호	10,000	2023.06.08
김정민	10,000	2023.06.08
강윤구	10,000	2023.06.08
이종준	10,000	2023.06.08
윤아현	10,000	2023.06.08
석소현	10,000	2023.06.08
이창규	10,000	2023.06.08
이종화	50,000	2023.06.08
유석호	50,000	2023.06.08
이현선	50,000	2023.06.08
오태욱	100,000	2023.06.08
신혜주	50,000	2023.06.08
박진호	10,000	2023.06.08
김지수	10,000	2023.06.08
김다연	30,000	2023.06.08
박은정	10,000	2023.06.08
박상록	10,000	2023.06.08
이윤진	10,000	2023.06.08
김효준	10,000	2023.06.08
강희철	100,000	2023.06.08
박정현	30,000	2023.06.08
신동일	70,000	2023.06.08
홍성혜	10,000	2023.06.08
권영준	20,000,000	2023.06.16
정철호	10,000	2023.07.08
김정민	10,000	2023.07.08
강윤구	10,000	2023.07.08
이종준	10,000	2023.07.08
윤아현	10,000	2023.07.08
석소현	10,000	2023.07.08
이창규	10,000	2023.07.08
이종화	50,000	2023.07.08
유석호	50,000	2023.07.08
이현선	50,000	2023.07.08
오태욱	100,000	2023.07.08
신혜주	50,000	2023.07.08
박진호	10,000	2023.07.08
김지수	10,000	2023.07.08
김다연	30,000	2023.07.08
박은정	10,000	2023.07.08
박상록	10,000	2023.07.08
이윤진	10,000	2023.07.08
김효준	10,000	2023.07.08
강희철	100,000	2023.07.08
박정현	30,000	2023.07.08
신동일	70,000	2023.07.08
이명신	1,000,000	2023.07.18
김환권	1,000,000	2023.07.21
김현	10,000,000	2023.07.27
홍성혜	10,000	2023.08.08
정철호	10,000	2023.08.08
김정민	10,000	2023.08.08
강윤구	10,000	2023.08.08
이종준	10,000	2023.08.08
윤아현	10,000	2023.08.08
석소현	10,000	2023.08.08
이창규	10,000	2023.08.08
이종화	50,000	2023.08.08
유석호	50,000	2023.08.08
이현선	50,000	2023.08.08
오태욱	100,000	2023.08.08
신혜주	50,000	2023.08.08
박진호	10,000	2023.08.08
김지수	10,000	2023.08.08
김다연	30,000	2023.08.08
박은정	10,000	2023.08.08
박상록	10,000	2023.08.08
이윤진	10,000	2023.08.08
김효준	10,000	2023.08.08
강희철	100,000	2023.08.08
박정현	30,000	2023.08.08
신동일	70,000	2023.08.08
홍성혜	10,000	2023.08.08
ALP 34	30,000,000	2023.08.17
유제민	1,000,000	2023.08.21
청파장학재단	6,649,000	2023.08.23
이의영	30,000	2023.01.10
이경준	100,000	2023.01.20
정병기	10,000	2023.01.25
방윤섭	100,000	2023.01.25
김하영	50,000	2023.01.25
홍석재	50,000	2023.01.25
육지희	10,000	2023.01.25
최지석	10,000	2023.01.25
전일호	10,000	2023.01.25
유홍수	100,000	2023.01.25
이의영	30,000	2023.02.10
이경준	100,000	2023.02.20
정병기	10,000	2023.02.27
방윤섭	100,000	2023.02.27
김하영	50,000	2023.02.27
홍석재	50,000	2023.02.27
육지희	10,000	2023.02.27
최지석	10,000	2023.02.27
전일호	10,000	2023.02.27
유홍수	100,000	2023.02.27
이의영	30,000	2023.03.10
한화투자증권	10,000,000	2023.03.15
한화손해보험(주)	10,000,000	2023.03.16
이경준	100,000	2023.03.20
한화생명보험(주)	10,000,000	2023.03.23
한화토탈 주식회사	10,000,000	2023.03.23
한화솔루션 주식회사	10,000,000	2023.03.23
한화솔루션(주)	10,000,000	2023.03.23
(주)한화	10,000,000	2023.03.23
정병기	10,000	2023.03.27
방윤섭	100,000	2023.03.27
김하영	50,000	2023.03.27
홍석재	50,000	2023.03.27
최지석	10,000	2023.03.27
전일호	10,000	2023.03.27
유홍수	100,000	2023.03.27
한화시스템(주)	10,000,000	2023.03.29
한화비전 주식회사	10,000,000	2023.03.29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10,000,000	2023.03.29
이범재	1,000,000	2023.04.10
이의영	30,000	2023.04.10
이경준	100,000	2023.04.20
정병기	10,000	2023.04.25
방윤섭	100,000	2023.04.25
김하영	50,000	2023.04.25
홍석재	50,000	2023.04.25
최지석	10,000	2023.04.25
전일호	10,000	2023.04.25

유흥수	100,000	2023.04.25
이의영	30,000	2023.05.10
이경준	100,000	2023.05.22
정병기	10,000	2023.05.25
김하영	50,000	2023.05.25
홍석재	50,000	2023.05.25
최지석	10,000	2023.05.25
전일호	10,000	2023.05.25
유흥수	100,000	2023.05.25
차원석	10,000	2023.06.03
이의영	30,000	2023.06.12
이경준	100,000	2023.06.20
정병기	10,000	2023.06.26
방윤섭	100,000	2023.06.26
김하영	50,000	2023.06.26
홍석재	50,000	2023.06.26
최지석	10,000	2023.06.26
전일호	10,000	2023.06.26
유흥수	100,000	2023.06.26
이의영	30,000	2023.07.10
노주환	10,000	2023.07.19
이경준	100,000	2023.07.20
정병기	10,000	2023.07.25
방윤섭	100,000	2023.07.25
김하영	50,000	2023.07.25
홍석재	50,000	2023.07.25
최지석	10,000	2023.07.25
전일호	10,000	2023.07.25
유흥수	100,000	2023.07.25
이의영	30,000	2023.08.10
이경준	100,000	2023.08.21
한화손해보험(주)	15,000,000	2023.08.22
(주)한화	15,000,000	2023.08.23
한화투자증권	15,000,000	2023.08.23
한화솔루션(주)	15,000,000	2023.08.23
한화솔루션 주식회사	15,000,000	2023.08.23
한화토탈 주식회사	15,000,000	2023.08.23
한화생명보험(주)	15,000,000	2023.08.23
정병기	10,000	2023.08.25
방윤섭	100,000	2023.08.25
김하영	50,000	2023.08.25
홍석재	50,000	2023.08.25
최지석	10,000	2023.08.25
전일호	10,000	2023.08.25
유흥수	100,000	2023.08.25

* 기부정보는 기부자의 익명약정 요청 및 신청서가 미접수된 경우 해당 정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예 우 안 내

기부금액에 따라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서 제공하는 예우 프로그램과 서울법대의 특별 예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50억 원	10억 원	5억 원	1억 원	5천만 원	1천만 원	1백만 원
기념품 및 간행물	총장 명의 감사패, 원장 명의 감사패	•	•	•	•	•	•	감사장
	기념품(본부, 법대), 간행물(본부, 법대), 달력, 생일카드	•	•	•	•	•	•	•
관악 명예 동문 특별초청	입학식, 개교기념식	•	•	–	–	–	–	–
	총장실 초청 약정식 및 감사패	•	•	•	•	–	–	–
	캠퍼스투어, 장학금 수여식	•	•	•	•	–	–	–
	기부자 초청 음악회, 전시회	•	•	•	•	•	•	–
	법대 행사 초청	•	•	•	–	–	–	–
	흉상	•	–	–	–	–	–	–
	부조	•	•	–	–	–	–	–
	기부자 리포트(본부, 법대)	•	•	•	•	•	–	–
	법대 명예의 전당(17동 1층) 명패 보존, 행정관 명예의 전당, 연구공원 명예의 전당(1억원 이상)	•	•	•	•	•	•	–
	교내 주요 행사 초청	•	•	•	•	•	–	–
	총장 공관 만찬 초청	•	–	–	–	–	–	–
학교시설 이용편의	관악캠퍼스 무료주차	•	•	•	•	–	–	–
	미술관,박물관,규장각 관람	•	•	•	•	•	•	–
	호암교수회관 및 서울대 기념품 할인	•	•	•	•	•	•	–
	중앙도서관 본관 이용	•	•	•	•	•	•	•
	평생교육원 수강료 할인	•	•	•	•	•	•	기한
	법학도서관 이용	•	•	•	•	•	•	•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입학추천권	•	•	•	•	•	–	–
서울대병원 이용편의	건강검진 주선 및 진료예약	평생	평생	기한	기한	–	–	–
	의전서비스	평생	10년	기한	기한	–	–	–
	근조기	•	•	•	•	•	•	–

SNU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02-880-7530
Fax. 02-889-7196

정의의 종 38호
http://law.snu.ac.kr